탄신 100주년 청화 대종사 '염불선' 조명된다



벽산무주회 · 청화사상연구회
11월 30일 무안군 혜운사서
탄신 100주년 학술대회 개최
청화 대종사 기념관 첫 행사
12월 1일엔 추모다례재 봉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염불선을 주창하며 중생들을 제도했던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무주 청화 대종사〈1923~2003, 사진〉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벽산무주회(의장 도웅)와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남 무안군 혜운사에서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및 열반 20주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청화 대종사가 고향 전남 무안에 세운 첫 사찰인 혜운사에 조성된 '청화 대종사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여서 의미를 더한다. 청화대종사성역화기념사업회(회장 혜용)가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조성한 '청화 대종사 기념관'은 대종사의 유묵과 유품, 기록물 등을 수장 · 전시하는 전시관과 명상수련관, 요사채(숙박동), 종각 등으로 구성됐다.

'염불선의 성립과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의 '선수련과 인간실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청화대종사 행장(강행원 화백) △중국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계승과 발전-정중 무상을 중심으로 고찰(법상 스님, 중앙승가대) △인도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성립과 계승-〈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고찰(조준호,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성륜사 주지 대주 스님, 김용남 前성균관대 교수, 김치온 진각대 교수가 참여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학술세미나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청화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도 봉행된다.

청화 대종사 탄신 100주년 재단 이사장 명원 스님(서울 광륜사 주지)은 "청화 대종사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그 법(法)이 경전과 조사어록에 근거하고 한 치도 벗어남이 없기 때문"이라며 "염불선 역시 경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재 대중들에게 맞는 수행법이기에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는 올해는 '청화 대종사 기념관'이 완공돼 본격적인 선양 사업이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하다"며 "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화대종사성역화기념사업회장 혜용 스님(혜운사 주지)은 "청화 대종사의 유지와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성역화 불사의 중심인 '청화 대종사 기념관'이 완공돼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청화 대종사의 고향이 무안을 중심으로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화 대종사는 1923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태어났다.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대흥사와 혜운사, 칠장사 등서 수행정진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승으로 엄정한 계율 준수와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 대종사는 40여 년 동안 눕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실천했고 하루 한 끼만 식사하는 일일일식(一日一食)을 지켰다. 1985년부터 3년간은 묵언수행하기도 했다. 2003년 곡성 성륜사에서 법납 56세 세납 81세로 원적에 들었다.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 웹툰으로 만난다

11월 13일부터 총 15회 연재돼
유응오 불자 소설가 스토리 맡아

중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운암 김성숙 선생의 불교 행적을 웹툰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선양단체인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불교 유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운암 김성숙 선생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불교를 어떻게 입문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조명한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을 제작해 11월 13일부터 독립운동가 웹툰 플랫폼 '독립닷컴'에서 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태허'는 운암 김성숙 선생의 법명으로, 1916년 용문사로 출가해 사문이 됐다.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홍월초 스님의 권유로 중국으로 망명해 임정의 국무위원을 지냈다.

이번 웹툰은 운암 김성숙 선생을 다룬 두 번째 웹툰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이 풍곡 신원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과정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봉선사에서 홍월초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만해 한용운 스님, 의암 손병희와 교류한 이야기, 3 · 1운동 당시 남양주 광천시장에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투옥된 이야기 등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첫 연재는 3화 동시 게재됐고 매주 1~2화씩 연재돼 12월 말까지 총 15화가 연재될 예정이다.

웹툰제작에는 본지 필진인 유응오 불자 소설가가 시나리오에 참여했으며, 작화는 정수일 불교만화 작가가 맡았다.

운암김성숙사업회는 "이번 작품은 박제된 독립운동가 이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대중에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가의 창작을 가미했다"며 "독립운동의 산실 봉선사의 스님들과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불교사상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을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 한 장면.

불자 무용가 안윤지, 치유의 춤 선보인다

11월 26일 부산금정문화회관
故 선운 임이조 10주기 추모



안윤지 무용가가 승무를 선보이고 있다.

안윤지 연지무용단(대표 안윤지)이 故 선운 임이조 10주기를 맞아 정기 공연을 열고 우리 전통춤을 선보인다.

안윤지 연지무용단은 11월 2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은빛샘물 소극장에서 '무발현 무휘(舞發現 舞輝)'를 주제로 공연한다. '숨겨져 있던 춤이 드러나고 빛나는 춤'이라는 '무발현 무휘'는 전통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안윤지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안윤지 대표는 "우리 전통춤은 보는 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우리 전통춤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치유를 선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선운 임이조 선생을 추모하는 장이다. 임이조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 조교이며 제97호 살풀이 춤 이수자였다. 인간문화재 이매방의 적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매방에게 사사해 질박한 호남류 춤사위에 창작을 더한 창작무로 유명하다. 이매방 선생의 호남류 춤을 이어 받고 정통성을 유지하며 고유의 맛을 올곧게 살린 이로 평가된다.

안윤지 대표는 선운 임이조춤 보존회 부산지부장을 담당하고 전통춤의 고유의 춤사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승무, 입춤, 한량무, 교방살풀이, 대금독주, 살풀이춤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의 악사 출연진도 화려하다. 악사는 이성준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와 장단을 담당하는 유인상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및 고법 이수자, 아쟁은 이관웅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가 맡는다. 거문고는 이진우, 피리는 이종철, 타악과 구음은 박종훈, 타악 박주흥이 담당한다. 이성준 대금산조 이수자는 이번 공연을 위해 대금 독주곡 '기억'을 초연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창작한 '기억'은 메나리풍의 선율과 진계면조의 짙은 가락으로 구성되어 가을과 어울리는 선율이다.

안윤지 대표는 "춤은 신체를 통한 치유의 언어"라며 "오랜 기간 춤을 추지 못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49재 천도재에서 춤을 다시 출 수 있었다. 저의 춤을 보고 싶어하신 아버지를 위해 천도하는 마음으로 살풀이 춤을 추며 저의 마음도 함께 울고 치유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춤을 통해 치유의 언어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윤지 대표는 영남대 국악과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이다. 경남무형문화재 제45호 밀양작약산예수재 전수자이며 제6회 법성포단오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 제14회 가무악 고법 연희대제전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연은 오후 5시이며, 전석 무료 초대석이다. (010)7795-66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담 스님 선필,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

故유일봉 선생 유족 기증식

한국 근현대 선지식 중 한 명인 청담 순호 대종사의 선필이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이하 박물관)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청담 대종사 선필 '불(佛)' 현액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되는 청담 대종사의 선필 '불'은 故유일봉 선생이 생전에 스님께 직접 받은 글씨로, 액자로 장황해 거실 중앙에 걸어 놓았던 유물이다. 이 선필은 청담 대종사가 유일봉 선생에게 1969년에 써서 준 것으로 대종사의 선기(禪氣)가 어린 호방한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작고한 유일봉 선생은 1968년 1월 춘천방송국 방송과장, 1969년 중앙방송국 대공과장, 1970년 중앙방송국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68년 7월에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의 문화재관리 및 박물관과 종교업무를 인수해 확대할 당시 초대 종무과장에 임명돼 정부의 종교관련 중책을 맡아 정부와 종단의 여러 현안의 가교의 실무를 성실히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담 대종사는 1966년 12월 통합종단의 종정으로 추대됐고, 1968년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던 시기에 한국불교를 대표해 문화공보부와 종교문제를 이끌어 나갔다. 이 당시 초대 종무과장 소임을 맡았던 유일봉 선생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담 대종사의 선필 '佛'

선필의 기증자는 유일봉 선생의 아들 유동욱 씨로, 그는 "아버님의 유품 중 불교 관련 유물은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돼 잘 보존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기증의사를 밝혔다. 청담 대종사의 선필과 함께 법안 스님의 새해축하 '연하장'도 기증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글 윤창화 | 204쪽 | 9,5000 원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0 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